

북한개발소식

2022 DEC

12

통권 206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평화

탈북민 수기

주님의 은혜 (4)

북한뉴스

한·미·일 정상 '프놈펜 공동성명'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언급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2 DEC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평화

- 권두칼럼 01**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평화
- 칼럼_1 07** 박성열 _ 북한의 군사행보 강화와 한반도 평화
- 칼럼_2 13** 문성묵 _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 진단과 전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칼럼_3 19** 정은찬 _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통일
- 탈북민 수기 25** 김모란 _ 주님의 은혜 (4)
- 북한뉴스 31** 한·미·일 정상 '프놈펜 공동성명'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언급 외
- 서평 36** 조센징, 째포, 탈북민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평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 연구소

북한의 계속된 무력 시위

9월 이후 북한의 군사 행보가 심상치 않다. 연 초부터 이어진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이 핵과 ICBM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차례 ICBM과 SLBM 발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규모 포 사격 훈련과 공군 훈련 등 재래식 군사 움직임도 활발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도 포 사격이 이루어지고 일본 인근 수역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반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행보의 이유를 외부로 돌리고 있다. 특히 9월 말 진행되었던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10월 말 - 11월 초 진행된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 대해 북한은 이러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격양된 입장을 보였고, 연합 훈련에 대한 맞대응성 군사 도발도 실시했

다. 반면 한미는 북한의 잇단 도발적 미사일발사에 대응해 진행된 방어 훈련이라고 응대하며 북한 측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군사 행보가 결국 제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양국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속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내내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감각이 무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느낌보다도 훨씬 더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 행보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봄에 최근의 긴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 및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한다.

북한의 무력시위 이면의 핵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재래식 전력까지 사용한 도발이 이



〈북한이 11월 18일 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주요 관건은 핵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래식 전력은 남한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고,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 적진에 투발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공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신법’)라는 이름의 법령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2013년 제정되었던 기존의 ‘핵보유국법’(이하 ‘구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핵무력의 목적을 국가주권과 직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토완정’, 즉 남북 통일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추가하였다. 핵무력의 지휘통제와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최종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사전결정된 작전 방안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핵무기 사용조건 및 입장에 대해서도 구법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강조하였다면 신법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등이 임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핵확산 방지에 대해서

는 ‘핵무기의 국외배비(配備), 공유, 이전’ 등 핵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규제 항목을 나열하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핵확산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¹

이번 신법 제정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언급이다. 신법에서는 방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겠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제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지도자의 신변을 위협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핵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덧붙여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신들이 이미 핵보유국가이며 이제 앞으로의 협상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가겠다는 복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 확대는 협상 상대인 미국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 미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북한에 대해 핵, 화학무기, 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왔고, 김정은이 이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정권 안보를 최우선하는 점을 반영하여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할 경우 ‘정권 종말(the end of regime)’로 귀결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단거리 핵무기를 이용하

1 이승현 (2022)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와 대응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2007호 (22.10.25)

북한의 핵 무력 관련 신·구 법률의 비교

항목	신법	구법
목적	• 국가주권, 영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전쟁억제+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제1조)	• 핵위협에 대처하는 억제격퇴 방위수단(제1조, 제2조)
지휘통제	• 국무위원장(김정은) or 사전결정된 작전방안(제3조)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제4조)
사용조건 및 입장	•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등이 임박한 경우(제6조)	•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제5조)
핵확산방지	• 핵무기의 국외배비(配備), 공유, 이전 등 ‘금지’(제10조)	• 핵확산 방지의 국제적 노력에 ‘협조’(제8조)
핵무력구성	• 각종 핵탄,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등(제2조)	• 관련규정 없음
사용결정집행	• 핵무기사용명령 즉시 집행(제4조)	• 관련규정 없음
동원태세	• 임의의 조건·환경에서도 집행할 동원태세 유지(제7조)	• 관련규정 없음
종합평가	• 선제사용 가능성 포함	• 방어적 사용 천명

여 동아시아에 전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전략공격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²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현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 핵 없이는 경제적/군사적 열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렵고, 한국 입장에서도 핵무기가 없이는 북한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남북 간 대등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³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남북 군비통제와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이 핵 군비 경쟁에 나설 경우 북한은 현재 50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30

2 이성훈 (2022)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06호 (22.11.01), 3.

3 정성장 (2022), “[발제3]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군축을 위한 4단계 전략”, 2022년 SAND동북아국제포럼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길 자료집, 45-65.

년경에 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한국은 이미 핵무기 4,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협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실제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꺼내들어서 북한의 쟁점을 바꾸고 일본과 대만으로의 핵 확산을 우려하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도록 만드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과 핵 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이 의미를 잃게 되고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용인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다.⁴ 핵을 원격으로 투발하거나 해양에서 발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4 Bruce Klingner, “Now Is Not the Time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 The Heritage Foundation Homepage (2022.08.04.),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w-not-the-time-south-korea-go-nuclear>>

특정 지역에 핵을 배치한다는 개념은 이미 사장된 것이며,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철수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핵무장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할을 확충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과도하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핵무장을 위한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한국도 피할 수 없으며 중국의 반발이나 일본의 핵무장 자극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조바심과 딜레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핵 사용 가능성 확대는 한미의 반발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군사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 작용하는 동기와 판단을 짐작해볼때 북한 정권이 행보에서 일종의 조바심이 느껴진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수출과 수입 모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외화의 고갈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 자원 수입의 제한은 북한 경제를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듯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국경 봉쇄로 교역량 자체를 급감시켰다. 그리고 다시금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물자 부족으로 약해진 민수 경제 대신 국가 주도의 군수 경제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버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과 주민 생계의 악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잠시 동안은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우며 악화된 상황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긴 했지만,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국가 경제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만도 위험한 수준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당국이 강력한 군사 행보를 선전하는 이유에는 주민들에게 그간 집중된 군수 경제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으로 인해 부과된 만큼 북한의 핵개발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제재의 원인이 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을 보유한 가운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협상 자체를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이다.

최근 미중/미러 갈등으로 인한 소위 “신냉전”적인 상황은 북한의 과감한 행동을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는 러우 전쟁 등으로 관심이 쏠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시금 북한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렇게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다. 실제로 11월 22일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발사에 따른 제재 강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국의 북한 관련 거부권 행사는 올해에만 10번째이다.⁵

⁵ “북한 ICBM: 중러 '거부권' 또 사용... 유엔 안보리 '개혁' 가능할까?”, BBC 코리아 (2022.11.22.) <<https://www.bbc.com/korean/news-63633590>>

이러한 상황이 핵군축과 제재 해제로 협상을 이끌기를 원하는 북한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근래의 유래없는 잦은 무력 시위는 어찌보면 북한이 그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핵을 보유한 가운데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조급함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론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적인 행보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을까?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북한의 바람과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듯이 보인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미 해상/공중 연합훈련의 경우 전에 비해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해상연합훈련의 경우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가하였고, 공중연합훈련의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등 전에 비해 훈련 수위도 높아졌다. 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11월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이 전술핵 등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경고장을 날렸다. SCM공동성명에서 정권교체나 종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이 내세우는 핵무



〈미 핵항모 도널드레이건호〉

장과 군비 증강이 오히려 현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는 핵군축이든 비핵화가든 그 진정성과 검증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향후 북핵 협상이 비핵화 대신 핵군축으로 옮겨질 경우를 생각해보자. 핵군축도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의 보유 핵무기량이 현재 추정되는 50여개에서 10여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그만큼 북한이 핵 사용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방어나 대응도 용이해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핵을 정직하게 자신들의 핵무기 수량을 공개하고 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유지한 가운데 생색내기 수준의 핵 군축만 이루어지고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으로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얻어낸다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외부의 제어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가운데 핵 위협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북한의 군사행보 강화와 한반도 평화

박성열 교수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도 있다. 비핵화 역시 같은 의문점과 마주하게 된다. 즉 현재의 비핵화나 핵군축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대화상대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종합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수용소를 폐지하거나, 굶어죽는 주민에게 제대로 구호식량을 배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사회는 비로소 북한이 개방을 향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 없이는 현실적으로 현장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실상의 ‘치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핵화 협상을 잘 한다 해도 검증 단계에서 벽에 부딪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 실행에도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다. 실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개선 없이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설명이다.⁶

이런 맥락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당국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사조에 대한 강력 처벌하는 등 현 상황을 더 큰 억압을 통해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현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군사적 성과를 선전하면서 외부의 적으로 경제난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강화했던 주민 통제에 최근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상황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인권 유린, 통제, 박해로 체제를 유지하고 난관을 돌파하려는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한다면 결국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평가를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무기들은 역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압박도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하고 바른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북한이 더 큰 죄악을 더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

1. 서론

북한은 2022년 1월 5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필두로 11월 18일 화성-17호 ICBM을 발사하기까지 40여회 이상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한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을 실시하는 등 이례적인 무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무력 행보를 보여 왔지만 올해처럼 일 년 내내 미사일을 쏘아대고, 공군력까지 동원한 무력 도발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태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파급영향을 전망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2022년 북한의 군사행보 강화 실태 및 특징

올해 북한의 무력 도발 실태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첫째, 미사일 발사 장소가 북한 내 전역에 걸쳐 다양하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의 추적을 가능한 피하고 유사시 남한과 미군의 발사 원점 타격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다. 둘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개발과 완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2월, 3월, 5월에 ICBM을 시험 발사해오다 11월 18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호(1만 5,000km 추정)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잠수함을 통한 SLBM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투발 수단을 갖췄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셋째, 과거에 비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사거리와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집중 시험하고 발사하였다. KN-23, 24(단거리탄도미사일)등 남

6 빅터 차 “북한 인권 문제 다뤄야 신뢰, 검증, 투자 가능”, VOA (2019.07.18.) <<https://www.voakorea.com/a/5004710.html>>

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공격체계와 장사정포 등을 실험하고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남한에 대한 비대칭전력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넷째, 미사일 발사 시기가 1월과 10~11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남한의 정권교체기 안보태세를 시험하거나 미국의 중간선거(11월 8일)를 전후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전략적 의도

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북한의 상시적 무력 도발 배경 및 의도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탄도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하는 데 최대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 676억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되며, 11월까지 포함하면 1조원을 훌쩍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되

〈표〉북한의 2022년 미사일 발사 실태

시기	미사일 발사 내용
1월	▲5일, 자강도에서 동해상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극초음속미사일' 1발.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MRBM급 극초음속미사일 1발. ▲14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 ▲17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 SRBM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2발. ▲2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KN-23 2발 ▲30일, 자강도에서 동해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
2월	▲17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 SRBM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2발.
3월	▲5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 1발. ▲16일, 평양 순안에서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 1발 발사(실패).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4발. ▲2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화성-15형' 1발.
4월	▲16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동해상 전술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무기) 2발.
5월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7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 초대형 방사포(KN-25) 추정 SRBM 3발. ▲25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및 SRBM 2발.
6월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SRBM 2발씩 총 8발.
7월	▲10일, 북한 서해안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 사격. ▲11일, 북한 서해안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1발 사격.
8월	▲17일, 평안남도 온천비행장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저수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 ▲28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29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10월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IRBM 1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 KN-25 추정 SRBM 1발, KN-23 추정 SRBM 1발 발사/ 황해도 곡산에서 황주 쪽으로 군용기 12대 동원 공대지 사격훈련. ▲18일, 강원도 원산에서 전투기 150여대 동원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 실시 / 동부전선 일대 포병부대 '대집중 화력타격훈련' 실시. ▲9일,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 KN-25 2발. ▲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 서해상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13일~14일 오전, 군용기 10여대, 동·서부 내륙 및 서해 지역 상공에서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남하. '9·19군 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접근 / 황해도 마장동 일대, 해주만 일대, 장산곶 서방 일대, 강원도 구읍리 일대, 장전 일대 등에서 동·서해상으로 5차례 걸쳐 포격/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 발사. ▲18일, 황해도 장산곶 일대 및 강원도 장전에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2차례 포격. ▲19일,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24일, 황해남도 장산곶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28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
11월	▲▲2일, 평안북도 일대에서 서해상 SRBM 4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 북한 동·서해안 일대에서 각각 해상으로 SRBM 및 지대공미사일 등 10여발 발사, 강원도 고성군에서 동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북한 동·서해안 일대에서 각각 해상을 향해 지대공미사일 등 6발. ▲3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 ICBM 추정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추정 2발. (ICBM은 최고 고도 1920km, 비행거리 760km, 속도는 마하 15. 1단과 2단 추진체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로 재진입 정상 비행에는 실패) ▲5일, 평안북도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 ▲9일, 평남 숙천에서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발. ▲17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18일, 평양 순안에서 일본 EEZ해역상 ICBM 화성-17형. (한미일 정보당국,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과거 화성 15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최대 1만 5,000키로 미사일로 미 본토 전역 사정권 평가)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그렇다면 북한이 연례적 자연재해와 대북제재 지속, 코로나19 봉쇄라는 3중고에 직면하여 경제난과 식량난에 허덕이면서도 엄청난 자금을 들여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북한 내부와 대외적 측면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먼저, 북한 내부적 요인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한은 체제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며 핵 보유만이 미국에 대항하여 체제를 보위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3대 요인(핵물질 추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 기폭장치 / 핵무기 운반 수단: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4회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1 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1발 당 발사 비용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약 250~395억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약 38억~63억원 수준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토안보부장관은 11.15 하원 국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2년 동안에만 북한은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달러 사이버 강탈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을 댔다”고 밝혔다.

ICBM 개발에 올인해 오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런 인식하에 핵무기 경량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 등 핵무기 체제 완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무력 도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셋째,金正은은 내부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민대중에게 미국에 맞서는 '핵 강국' 이미지를 본인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인민 자존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 행보와 대외 위기감 조성을 통해 내부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백두혈통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올해 들어 다양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의 방어망 무력화 등 전력 우위를 점하고 실전 활용도를 높여 무기체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본토를 타격할 무기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하고, 미국과 핵 군축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물질 확보, 핵무기 및 다양한 운반수단(ICBM, 잠수함에서의 SLBM 등)을 완비하여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역량을 갖추므로써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²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집중된 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공개한 북한 전투기 훈련 사진(위)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연합훈련에 참가한 B1B, F35, F16이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아래)〉

사일 발사는 바이든 정부의 관심과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켜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하겠다. 둘째, 미 본토를 타격하고 핵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등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며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맹을 약화시키고 분리시키는 등 남한 혁명의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남한을 타격할 다양한 미사일과 핵전력을 바탕으로 남한 정권을 위협하고 길들이며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복안이다. 넷째, 북한은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와 맞물려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미일 대북중력 대결구도로 재편되자,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더라도 중국이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³ 미중간 대결구도를 이용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자신들의 입지를 제고하려는 노림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 향후 전망과 파급영향

1) 북한의 행보와 미·중의 대응

북한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민심을 다독이면서 체제를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항하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상시적 미사일 발사와 함께 여건을 저울질하며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2022년 4월에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며 포괄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었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표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⁴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과 핵무력을 감안할 때 서해 5도 점거, 수도권 포격 등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강국 입장에 북한의 상시적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미

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북핵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북 협상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 미국 내 여론도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도 누적을 제기하고 있어 북한과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⁵ 중국은 북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의 패권 대결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 행보를 미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고, 오히려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을 이면 지원하는 등 북한의 강성 행보를 방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반도 주변의 ‘안보 딜레마’ 현상과 군사적 긴장 고조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상시 발사와 한미 연합 전력의 대응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상호 군비경쟁과 역내 불안정성이 높아가는 ‘안보딜레마’에 처해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딜레마’는 국제정치학 개념으로서 한 국가 A가 안보 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국가 B가 그것을 보고 안보 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것을 보고 A가 다시 안보 불안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강해 결국 A와 B

2 상호확증파괴는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 혹은 도달한 후 남아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방도 전멸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2022.11.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고,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뺏길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해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이 법령은 ‘북한판 핵고리’를 공식한 것으로서 전쟁 억제를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억제 실패시 전술핵을 실전 사용하는 비대칭 확전 방침을 확인하고(남한과 일본 포함), 핵 지휘통제 체계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 결정된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 단행된다고 규정하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

5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결국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 진단과 전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은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 하더니 11월까지 30여회, 80여발을 발사했다. 금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필두로 하여 최근까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SRBM)과 중거리 미사일(IRBM)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했다. 이는 모라토리엄 즉, 2018년 김정은 총비서(이하 김정은)가 자발적으로 선언한 핵실험 금지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다. 어디 이뿐인가? 9월 초에는 핵 선제사용이 가능하도록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제정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여 남한의 주요 기지와 항만, 지휘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11월 2일에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경로로 예측

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은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은 동·서해 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는 마치 남측의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상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을 명분으로 도발을 하고 자기들의 역량은 강화하면서 우리 측의 대응역량은 약화시키려는 상투적인 노림수가 읽혀진다.

이제 남은 수순은 7차 핵실험 카드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거리 사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김정은의 노림수를 관철하려는 극단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북한의 잇단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어가며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지금

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어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오히려 심해지는 딜레마적인 현상을 지칭한다. 북한의 상시적 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의 대응은 상호 군비경쟁을 무한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한미 당국의 군사 대응이 뒤따르며, 특히 남한 내부에서 전술핵의 재도입, 나토식 핵공유 및 자체 핵무장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도 핵무장론 대두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유례없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핵 문제를 이면 조율할 미·중은 패권 갈등으로 타협과 조정이 어렵고 대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동아시아는 북핵과 대만 문제로 세계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5.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안보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두 가지 대전제 아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안보)은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의 안녕을 위해 0.1%의 조그마한 위해 요인에도 사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의 핵은 남한을 무력화하는 절대적 무기체계이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미간 문서로 교환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망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위협에 대한 남한 내 인식을 공유하고 내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같은 민족

으로서 협상과 평화적 통일을 이룰 대상이나, 한편으로는 남한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파괴할 수 있는 이중적 상대임을 명확히 알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행보를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남한은 미국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역할론을 부각해야 한다. 남한 당국도 공식·비공식 라인을 가동하여 막혀있는 북한과의 교류 및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행보에 군사 대응으로 맞서는 것은 안보의 딜레마 현상을 조장하는 등 한계가 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무력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외교적 방안 등 포괄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느냐, 평화의 길로 돌아서느냐 하는 분기점이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늘 머리 위에이고 살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도 한미동맹이 복원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최근 벌이고 있는 잇단 군사도발의 특징과 노림수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한 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제언하려고 한다. 이글의 말미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제시한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의 특징과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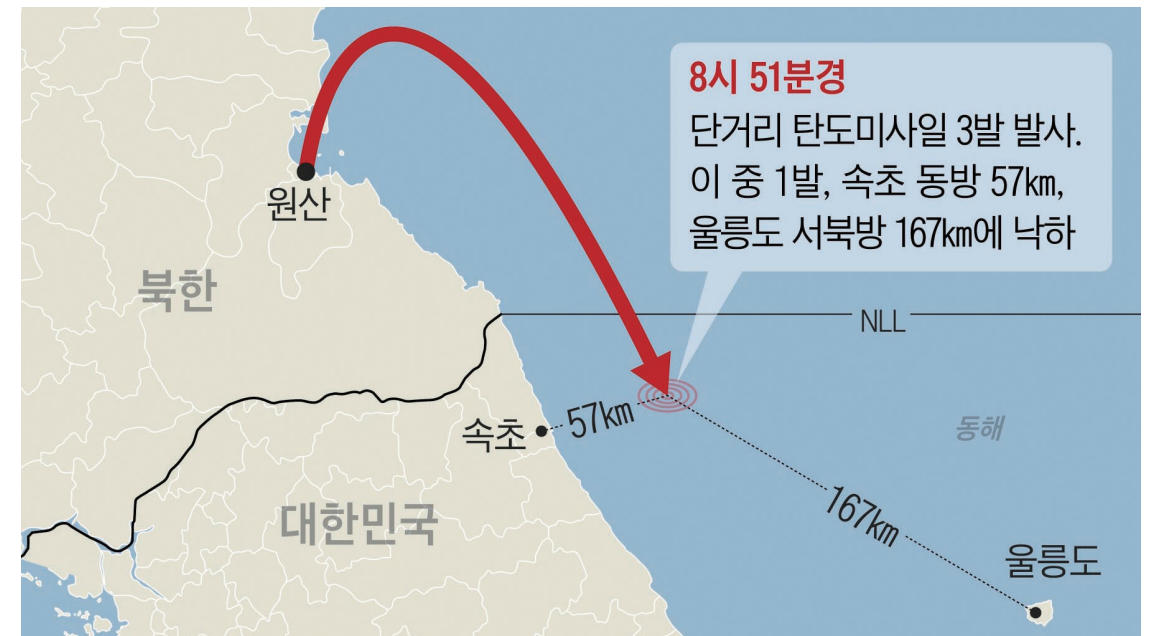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다.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구성된 동 법에는 북한 또는 지도부에 대한 핵무기 등의 공격이 있을 때 등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든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발사하도록 상시 대응태세를 구비를 명시하고 있다. 9월 25일 이후 11월초까지 북한이 보여준 도발의 특징과 의도를 살펴보자.

〈북한 도발에 나타난 주요 특징들〉

첫째는, 북한 도발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대담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들이 구비한 핵·미

사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지난 9월 하순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5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한미연합해상훈련과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을 이어간 기간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도발은 가급적 피해왔던 것이 북한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9월 말 이후 북한이 보여준 행태는 전혀 무관하게 담대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북한이 한미를 향해 인명 살상을 유발하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미국의 고성능의 전략자산이 전개된다 해도 북한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는, 남한과 일본 등 주요 표적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9월 28일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검증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0월 4일 신형 지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 12형 추정)을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10월 6일 새벽에는 적(남한)의 주요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하여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되었고, 9일 새벽에는 적의 주요 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여과 없이



〈북한은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함한 10발 이상의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에서 미사일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 미사일 방향상에 있는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래픽: 조선일보)〉

발표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잇단 도발 관련 북한의 발표가 상당히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1월 7일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응하여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일련의 도발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11월 3일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궤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3일에 발사한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단 분리 후 탄두가 동력을 잃어 소실되어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다. 또한 11월 4일 50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규모 공중훈련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지만 우리 측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은 180여개 뿐이

다. 제한된 역량으로 대응하다 보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한미의 연합연습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하순 한미연합해상 및 한미일 대잠훈련에 대해 즉각 반응했고, 10월 31일부터 11월5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때에도 즉각 대응했다. 박정현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대응을 예고한 직후 도발로 이어졌다. 조금도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북한 김정은의 노림수〉

김정은의 노림수는 대내, 대남, 대미 노림수로 구분하여 살펴해보려고 한다. 첫째, 대내적인 노



〈올 9월 25일 북한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저수지에서 발사를 시험한 것은 한미의 감시 능력을 의식하고 회피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림수이다. 최근 김정은의 최대 고민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다. 10년 전 자신이 공언한바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공약이 빈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내세울 업적은 오로지 군사력 뿐이다. 이 업적이 더욱 빛나려면 외부에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마침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여 한미 연합억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한미연습을 북침 핵전쟁연습으로 과장하여 이에 담대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켜 어려움에 신음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둘째, 대남 노림수는 한미연합연습과 연합억제력 약화를 유도하고 원칙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협상 분위기를 위해 2018년 이후 3대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R), 폴이글(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폐지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습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연합연습은 복원되었다. 전략자산의 전개도 부활되었다. 김정은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 대응을 흔들고 한미연합연습을 무력화시키려는 꿈수이다. 셋째, 대미 노림수는 소위 이중기준을 폐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인 만큼 북한을 향한 모든 제재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협상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만일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군사위협 진단과 향후 도발 전망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었다. 과거 핵무기는 자위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핵

전략은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이후,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은 물론, 포병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하여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북한은 38차례에 걸쳐 8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17종으로 크게 증가했고, 미사일 연료도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여 기습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숫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향한 ICBM의 완성도는 아직 미흡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섞어 쓰기를 한다면 우리의 3축체계로도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도발 전망〉

북한은 자기들의 노림수가 달성될 때까지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선포한 모라토리엄 중에서 남은 것은 추가 핵실험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줄곧 실험 시기에 대한 추정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10월 중순 중국의 전대 이후,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빗나갔다. 김정은에게 추가 핵실험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리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북한의 군사 행보와 한반도 통일

정은찬 교수 (국립통일교육원)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핵실험 뿐 아니라 한반도내에서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군사적 도발로 끊임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의 수위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 한미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첫째, 김정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그는 핵·미사일이 정권을 지켜줄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김정은에 핵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간구하자. 구소련은 핵이 있어도 망했고, 베트남은 핵이 없어도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토록 기도하자. 둘째,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불순한 노림수를 바로 인식한 가운데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김정은의 불순의도를 좌절시키고 일치단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현재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북한이 그 원인 제공자이다. 한미의 대응은 정당하며 우리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도, 남녀노소도 없다.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인식하고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자위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이 땅에 진정한 평

화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위협의 근원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북한 김정은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든지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에 진정한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김정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고르바초프와 같은 리더를 주시든지 이로써 자유민주 통일을 앞당겨 주시도록 기도하자.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북한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미사일 발사를 본격화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미관계에서는 ‘강대강’ 대결구도를, 대남관계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인 거리두기, 군사적 도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과연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핵심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는 김일성 시기의 ‘사회주의 완전승리’, 김정일 시기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공통분모가 같다. 즉, 3대 지도자 모두 북한식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수성 및 완성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핵심목표로 내세우고 경제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이하 ‘10대 전망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서 사실상 공산주의 사회 진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당시 북한이 내세웠던 양대 목표는 정치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점령이었다. 정치사상적 요새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공표한 북한은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을 위해 ‘10대 전망목표’ 달성을 계획하였다. 이 전망목표에는 전력 1,000억KW, 석탄 1억 2,000만t, 강철 1,500만t, 유색금속 150만t, 화학비료 700만t, 시멘트 2,000만t, 직물 15억m, 곡물 1,500만t, 수산물 500만t, 간척지(‘간석지’) 30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시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핵심목표로 내세우고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경제정책기조로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헌법 개정(2009)을 통해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하여 김일성 시기의 공산주의 실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2013.3.31.~2018.4.19.) 추진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을 공표하였으나, 사실상 북한은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왔다. 궁극적으로 2022년 9월 8일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제1혁명과업..”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한다. 우리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통일·대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원칙과 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북한의 군사행보를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II.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 행보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 시기의 (1) 선제공격, (2) 단기 속전속결, (3)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작전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김정일 시기에 전격전과 유생역량(有生力量) 말살, 정치사상의식 고취, 대량살상무기 이용 등이 추가되어 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비대칭무력 활용의 속전속결 전략이 추진되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선대지도자 시기의 군사전략 기조를 그대로 승계하여 유지하는 동시에 비대칭전력 보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지속적 개발 및 성능 개량, 특수전 전력의 증강,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 강화, 군사력 첨단화 등이다. 북한의 전략무기 확보는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목표로, 대외적 군사력 우위 선점, 이를 협상수단으로 한 체제안정 보장, 대내적인 결속 도모 등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김정은 시기에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1차 북핵위기 당시 뉴스 보도 (KBS)〉

지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 중 1차(2006.10.), 2차(2009.5.)를 제외한 3차(2013.2.), 4차(2016.1.), 5차(2016.9.), 6차(2017.9.)는 김정은 시기에 강행되었다. 이와 함께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 비핵 체제에 도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구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 과학자 파견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핵개발에 필요한 선진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한 북한은 1959년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1963년에는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 1965년부터 평안북도 영변지역에 대규모의 핵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핵개발 행보를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핵물질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핵실험장을 건설하는 등 핵무기 개발 기반시설을 확장하였으며, 영변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 시설 흑연감속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은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된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1991)에 따라 핵사찰을 받았으며, 사찰 결과 북한의 신고내역과의 불일치가 중대하게 제기되어 ‘제1차 북핵위기’가 유발되었다. 이러한 북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일단락되고 2002년까지 북한 핵개발이 동결되

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제2차 북핵위기는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음을 미국 부시 행정부에 시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결과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선언, 부시 행정부의 북한 지원 및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추방하고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한 동시에 사용한 핵연료봉을 재처리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핵위기는 고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것이 6자회담이었다. 2013년 8월에 시작된 6자 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6자 회담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도 197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이 과정에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500km 스커드 미사일, 1990년대 후반 1,300km 노동미사일, 2007년 3,000km 이상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형) 등을 배치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9년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 2022년 ‘화성-17형’ 발사 등을 통해 군사력 과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북한은 상대로 우리의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Ⅲ.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우리 정부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기반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기원하여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기념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로 구체화되었다. 3단계 통일방안에서 1단계는 화해협력,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통일국가의 완성이다. 1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공존과 공영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하여 경제 및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게 된다. 3단계 통일국가의 완성에서는 남북 평화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며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여 1민족·1국가·1제도·1정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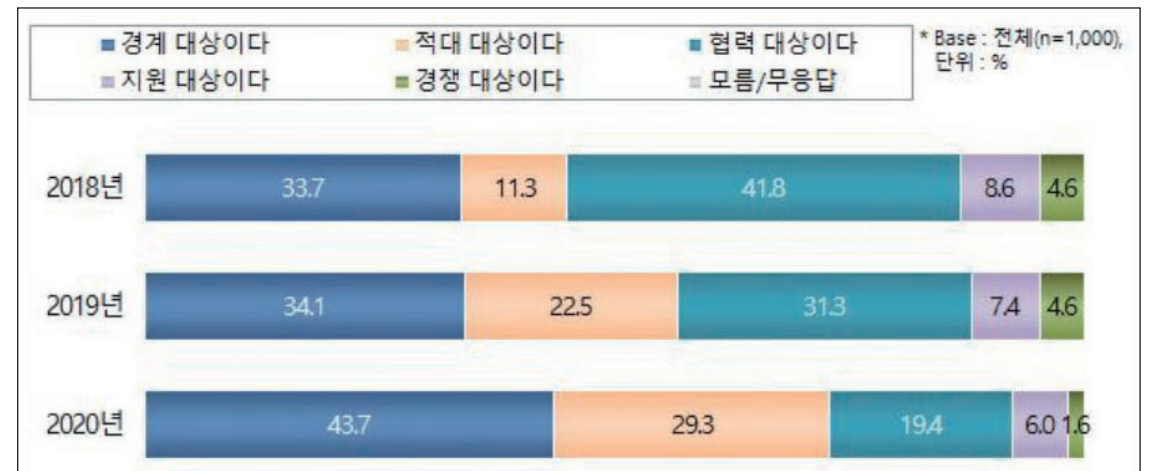
그러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안,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변화를 거듭해왔다.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보편적 국제기준의 3대 특징을 동반한다. 북한의 이중성은 북한이 우리에게 있어 경계대상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라는 데에 있다. 북한은 우리와 과거 신라 삼국 통일시기부터 1,300여 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하며 살았던 공통의 역사, 한 민족으로서의 전통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반자이며 교류협력의 대상이다. 반면에 핵·미사일 개발, 연이은 군사적 행보로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는 이와 같은 북한의 이중성과 함께 특수성도 내재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19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로 정의된다. 민족내부 관계를 규정한 이러한 특수성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에 기인하여 유엔 헌장 제4조 제1항에 의해 각자 개별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의 현안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대북정책으로 비핵·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3원칙으로 (1)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3)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1)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2)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3)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5)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대북정책의 핵심목표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워,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억제와 제재의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관된 노력을 통해 현재의 도발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담대한 구상을 한걸음씩 이행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2022년 8월 15일 광복 77주년 경축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제안한 대북 로드맵이다. 이 구상은 (1) 인프라 구축, (2) 민생 개선,

(3) 경제발전의 3대 분야에서 (1)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2)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3) 농업기술 지원, (4)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5)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의 5대 사업을 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평화체제의 구축, 나아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은 현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서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Ⅳ.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과 과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보가 강행될수록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꼭 통일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끝에서 통일 부정의 인식



〈KBS 국민 통일의식 조사 (2020) 중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주님의 은혜 (4)

김 모 란 (탈북청년 공동체 간사)

을 갖게 된다. KBS의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던 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비율은 만 19세 이상 1,000여 명 중 33.7%, 2019년 34.1%, 2020년 4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회의적인 의문을 기정사실화 하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류는 통일미래 주역인 우리 MZ 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에 부정적 전염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에게서 이중적 존재인 북한,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대상으로서의 북한을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은 기도이다.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힘을 모아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 행보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의 위력으로 북한 지도자의 핵개발 행보를 제어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의한 한반도 불안정성이 지속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개발로 피해의 당사자가 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아낌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하에 긍정적으로 결집되어 분단이 종식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음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70여 년 분단 장기화 속에서 때로는 갈등과 대결, 화해와 협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숙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 나라 통일을 위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갈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할 때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지금 바로 행해야 할 실천과제이다. 한반도에 복음통일의 그날이 속히 도래하길 소망한다! ☺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전5:11)

아가페 통일리더는 무조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 설립한 복지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듯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만 사는 기숙사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자주 어겼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끊임없는 거짓말과 일탈행위를 반복했던 그 학생의 경우도 공동체 정관에 따라 기숙사 퇴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학생과, 그 학생을 통해 탈북민을 끌어모으던 A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번은 모종의 협박 문자를 보내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저희 공동체에서 문제의 학생을 퇴출시킬 경우,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

위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저와 저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는 한국에 입국한지 매우 오래된 탈북민으로서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 듯 행세하며 많은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많이 주는 대형 교회나 정치적 성향의 모임 등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까지 수치와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14.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문제는 단순한 협박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과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

고, 이로 인해 저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가페통일리더에 속한 학생들과 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나를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만 듣고 저를 고소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가진 재물을 바쳐가며 헌신하고 있을 뿐인데, 왜 나와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말입니다. 더욱이 같은 크리스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만 상황은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하고 행했던 일들이 나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공동체 사역을 포기하라고 강압적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면서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 TV로 찬송가를 틀어놓고서 머리 위로 손바닥을 크게 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남편은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이 드느냐. 힘이 드느냐.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내 자녀라는 증거임을 모르겠느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울면서 통성으로 회개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저는 남편 손을 꼭 붙들고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아가페통일리더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동체의 안팎 상황은 성경 속 ‘느헤미야’ 스토리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동체 학생들과 함께 한홍 목사님의 ‘느헤미야’ 강해를 몇 번씩 들으면서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학생들은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1기 회장단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2기 회장단이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매들을 임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제1기숙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넓은 면적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낡았음에도 집주인이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서 화장실과 주방 및 거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입주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부터 업체 선정까지 모든 것이 쉽진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매일 줌을 통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주셔서 넘쳐흐르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충원 자원봉사, 한강 수해복구 자원봉사, 고아원 봉사, 김장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가페통일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3기 회장단이 매일 성경읽기와 대면 예배를 이끌면서 회원들을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15.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마10: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특히 금년 여름에 우리 학생 8명이 캄보디아에 의료선교를 갔다올 수 있었던 것은 아가페통일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떼어놓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연습의 일환으로 한 의료 선교 기



관과 함께 가는 캄보디아 의료선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참가하기를 원했지만, 필요 경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일 캄보디아 의료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계획하신 일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의료선교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경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의 정황인즉 이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전해들은 키다리 아저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자, 주변 분들이 10만원, 20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보내주셔서, 단 하루 만에 큰 금액이 모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명에 달하는 입금자 분들의 성별이나 성함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고 흥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임원진들은 출발할 날짜는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한 푼도 없어서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기도가 이뤄질까 하는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비를 그것도 2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목격한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 기적의 여운은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덕분에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학용품도 600세트나 준비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떠난 아가페통일리더 학생들은 너무도 훌륭하게 그 뻘뻘한 일정을 소화해 냈습니다. 귀국할 때는 본인들이 입고 있던 단체 티셔츠, 화장품, 신발까지 모두 현지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작 본인들은 슬리퍼를 신고 귀국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견뎌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긍휼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법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계신다는 생각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자매들이 귀국해서 들려준 간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지에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시 의료선교에 참가했던 한국인 의사와 약사 선생님들은 “의료선교에 참가한 아가페통일리더 학생들에게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16.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아가페통일리더에 속한 학생들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결과, 학생들 마음의 토양 속에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은 이제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길 원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열정이 넘치는 한 목사님을 초빙하여 성경통독 세미나인 ‘아가페통일리더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학생 15명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하루 13시간 동안 성경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강의를 진행하는 일도 듣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강의 현장은 목사님과 학생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자는 취지로 실시한 성만찬 시간에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몇일 뒤에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학생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세미

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성경통독 세미나를 마치고 온 날 저녁에 성령의 기운으로 몸이 불처럼 뜨거워져서 밤잠을 설쳤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가페통일리더는 단순히 친목을 다지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음모에 시달리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탈북여성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거짓과 중상모략이 판을 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마음 아프게 변질되어가는 어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기존 교회와 교회 사람들 중 이들의 욕심을 부채질하고 이용하거나 공동체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페통일리더 학생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면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리라.”는 신념으로 함께 기도하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분의 크나큰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더 단단히 성장했고, 이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

한·미·일 정상 ‘프놈펜 공동성명’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abductions issue)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3국 정상은 이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the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납북자 문제가 논의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거론되는 ‘납치자 문

제’는 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통용돼왔다. 그동안 일본이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상회의와 국제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프놈펜 성명은 ‘납치자 문제’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6·25전쟁 중 발생한 한국인 전사납북자와 납북 여부, KAL기 납북 피해자 등 전후 납북자를 모두 포함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들의 석방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최소 6명이 6~9년 동안 억류돼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김정욱(59)·김국기(68)·최춘길(63)씨 등 선교사 3명과 고현철(59)씨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명이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후납북자를 516명, 유엔은 국군포로를 최소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최섉희 외무상은 ‘프놈펜 성명’에 대해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

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이 탈북 공동체 사역을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페통일리더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석들을 보내주실지 그 기대감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1월에 예정된 인도 의료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 경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첫발을 뗀 아가페통일리더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단계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아가페통일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 또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체험하게 해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너무도 부족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끝> 🐼

아가페통일리더 공동체는...



아가페통일리더
AGAPE UNIFICATION LEADER
<아가페 통일리더 공동체 로고>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후,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일 리더로 준비하기 위해 이화에서 공부하는 북한 출신 크리스천 학생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탈북민들을 통일 후 복음의 전달자로 사 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뜻과 계획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을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성경공부 모임, 독서 세미나, 봉사 활동, 의료선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지향하며 주변에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글로벌 크리스천 통일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UN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은 반발



(참고: 동아일보, 11. 18)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미국 일본 등 63개 공동제안국의 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문구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해에

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즉각 결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질의응답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국장은 “진정한 인권기준은 서방의 인권선교사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이익과 지향,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구현된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절대시 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이상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어져… 김정은 딸도 참관



북한이 11월 18일 화성-17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전날인 17일에도 8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17일 이전 북한의 마지막 도발은 지난 9일 이뤄졌다. 특별히 18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했다. 특히 이번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부 인사들에게 손짓하며 지시하는 김 위원장을 리설주 여사의 옆에 나란히 서서 손을 모은 채 듣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도 동행해 공개된 ‘백두

혈통’이 사실상 총출동했다.

정보당국 분석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속 아이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둘째 김주애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나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딸을 처음 공개한 이유로 김일성 직계를 뜻하는 ‘백두혈통’으로서 권력을 과시하고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은 “딸과 함께하는 보통 사람 같은 지도자상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17형이 놓여 있는 엄중한 현장에서 딸과 함께하는 사진은 평범한 딸바보 아버지상을 연출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딸을 발사장에 데려올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개선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 서울신문, 11, 20) 🐼

탈북민 또 사망... 통일부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적 재점검”

지난 11월 7일 오후 탈북민 A씨(23)가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A씨 주변에는 개봉된 약봉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3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결과, 타박상이나 장기파열 등 신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5살 때인 2004년 할머니·아버지와 함께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에 왔다. 앞서 지난 달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통일부는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20대 북한이

탈주민(탈북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과 관련 "탈북민 위기 가구 지원과 관련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책 위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했으며 현재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자 단둥에만 8만 명... 코로나 검사 과정서 밝혀져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만 8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는 11월 14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방역 당국에 의해 단둥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방역 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단둥시 방역 당국은 지난 11월 1일 “오전 5시를 기점으로 단둥 모든 지역을 정태(靜態) 관리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필수 생산시설과 비상구조 인력을 제외한 모든 주민의 외출을 제한했다. 또 단둥시 방역 당국이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핵산(PCR)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을 검사하게 되면서 단둥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중국 방역 당국 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은 “조선(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앞서 단둥시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지난 4월 25일부터 3개월가량 봉쇄된 바 있다. 당시에 전 거주민 핵산 검사가 진행돼 북한 노동자들과 무역대표부, 주재원 등 북한인들도 검

사를 받았다고 한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단둥 전체 거주민 핵산 검사 때에도 단둥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중국 방역 당국을 통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1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하기 전에만 해도 북한 노동자들은 도강증만 가지고 중국에 입국해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의주로 들어가 도강 확인 도장을 받아 이를 갱신하며 중국 체류를 지속했다.

재중 북한 노동자들은 친척 방문 등 도강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에 입국해 불법으로 노동을 지속해왔다. 중국 공안과 이민 당국 등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단둥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8만 명이라면 지린(吉林)성 훈춘(琿春)과 옌지(延吉) 등을 포함한 중국 전체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최소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19년 당시 해외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를 약 1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입국 목적을 노동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한 후 중국에서 노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둥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8만 명이라는 규모에 대한 산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참고: 데일리NK, 11월 14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조선징, 패포, 탈북민
저자: 김석향
출판사: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21년 6월 30일
가격: 10,000원

오늘 소개할 책은 탈북 북송재일동포에 관한 연구서적이다. 탈북민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탈북민 중에서도 더 소수자인 북송재일동포가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는 조선징으로, 북한에서는 패포로, 그리고 탈북해서도 고향인 일본에서 국적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으로 간 재일조선인들은 한반도 역사의 굴곡 속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오늘 소개할 책, 김석향 교수의 저서 “조선징, 패포, 탈북민 - 탈북 북송재일동포의 세 토막 인생살이”는 북송재일동포 중 탈북하여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심층

선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조선인의 수는 총 93,340명에 이른다.

이 사업은 여러 부분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조총련 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인 북송에 대한 선전활동에 힘썼는데 그 내용에 왜곡과 과장이 많았다. 북한 당국은 북한을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전하면서 “아무 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일본에서 사용하던 물건은 다 버리고 오면 된다. 조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먹고 입고 공부하고 질병 치료를 받는데 돈 한 푼 쓸 필요가 없다. 집에 들어서면 쌀독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곡식이 가득 차 있고 퇴근길에는 가볍게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면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쏟아내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역사적 상황과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소외되었던 동포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정리한 재일조선인의 북한행은 1959년부터 84년까지 약 25년간 진행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소련 배 두 척에 재일조선인 975명을 태우고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 북한 청진항을 향해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84년 187항차 북송

었다. 북송선을 타는 일을 마치 “낙원행 티켓을 쥐었다”는 식의, 일종의 지상낙원의 꿈을 이루는 것인 양 호들갑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북한에 도착한 이들은 이러한 선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재일조선인들이 이러한 선전 내용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풍요와 낙원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다. 그러나 그 실상이 어떠한지 당시로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북한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북송 사업을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한다. 가장 많은 인원(7만 명 이상)이 이주한 59년에서 62년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선전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이주를 택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가족 전부를 데리고 이주를 선택했다. 이후 중기와 말기에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고 이주자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이주를 선택하더라도 전과 같은 희망적인 바램보다는 개인적, 또는 가족적 이유로 북송을 선택하였고 그 와중에 일본에 연고를 남기고 떠난 이들이 많았다.

재일조선인들이 북한행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당시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처한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사회적 차별도 커서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식민지 출신 이주민이었던 재일조선인을 온갖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였고 대학진학이나 출세에도 지장이 많았다. 일본 정부도 재일조선인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겠다는 지역이 나타나면 무조건 보내버리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송사업은 어떤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를 긍정받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탈출구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차별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북한 내에서도 패포, 쪽바리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다. 성분적으로도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아 사회적 지위도 나빴고 출세길도 제한적이었다. 거주 지역 배정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제각각이었다. 그나마 일본에서부터 인척들로부터 보내지는 지원과 일제 물품들이 이들에게 힘이 되었지만,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회담 이후 일본을 왕래하던 만경봉호의 운행이 중단되면서부터 그마저도 끊기고 말았다. 결국 극한의 경제난이 몰아치는

가운데 북한의 재일조선인들도 다른 북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탈북의 길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재일조선인 이슈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국적 문제이다. 재일조선인들은 북송 전 일본 거주 당시에도 일본 국적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았다. 고국이라고 생각했던 북한에서도 제대로 된 북한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낮은 성분과 함께 일제의 스파이일 수 있다는 오해와 편견,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지냈다. 그런데 탈북 이후에도 고향인 일본에서는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동포로서, 또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의 피해자로서 이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시기별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실제 당사자들의 증언을 담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책의 분량도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을 펼치는데 부담도 적은 편이다.

사실 북한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아니 한국의 근대사에 관심 있는 이라면 북송 재일조선인에 대해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민으로서의 북송 재일조선인의 이야기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탈북 후 한국행이 아닌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의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같은 동포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이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더 나아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을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돌아봄에 있어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으로서 일독을 권해본다. ☺

1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9월 말부터 연말에 대규모 군사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핵 투발용 미사일 발사 실험부터 포사격 실험과 대규모 전투기 훈련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딸까지 대동하면서 미사일 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군사행보를 규탄하고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경제적 어려움과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등 오히려 북한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기독교 박해 등은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협상 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도록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억압과 군사적 위협이 아닌 인권 개선과 국가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인권 억압, 기독교 박해의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등 기독교 박해에 이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군사적 긴장은 국내적으로 더 강력한 주민 통제와 기독교 박해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박해로 인하여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최근 중국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둥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 명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안보리가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외를 경험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얻은 이들도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안목을 갖게 되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10월에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이 시신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탈북민 A씨(23)가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서 돌보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탈북민 교회 중 상당수가 목회자 사례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3국 및 하나원 등을 거치며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탈북민들 중에는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한 영적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탈북민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에 따른 환율 폭등,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 등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방의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재작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겨울 북한은 국경봉쇄로 일시적으로 석탄의 수출길이 막혀 덜 추운 겨울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러시아 전쟁 관련하여 러시아정부의 군사적 협조요청에 따라 겨울철 군수물품을 북한이 지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북한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

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11월 30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